

4개 협의회, 개정 환경법 해설세미나 개최

서울협의회



서울협의회(회장·장희산)는 '91년도 환경정책 방향 및 개정환경관련 법규해설 세미나를 지난 3월 12일 회원 1백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로구청 구로구민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지방환경청 박명술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개정환경관계법 전반에 관한 해설강연을 하였으며, 이어 마련된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실무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

경기협의회



경기 협의회(회장·이상호)는 지난 3월 21일 안양상공회의소에서 「환경관계 법규해설 및 기술감리신청절차와 준계 지도단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2월 11일 법규해설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지방환경청 박명술 지도과장이 강사로 초빙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회원 및 환경관련 종사자 4백여명이 참가했다.

대전·충남협의회



대전·충남협의회(회장·이상윤)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부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폭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 법안에 관한 해설교육을 지난 3월 29일 대전공단협의회에서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전공업대학 윤오섭교수의 「폐기물 처리와 소각」 및 대전지방환경청 한정규 사무관의 「개정환경 보전법 요약 해설」교육이 있었다.

경기북부협의회



경기북부협의회(회장·이명길)는 지난 3월 7일 개정환경관계법규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의정부상공회의소에서 가졌다.

1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 이어 계속된 총회에서는 이명길(삼성피혁)씨가 차기회장으로 피선,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으며 이어 김내정 증경회장에 대한 공로패 증정식도 함께 가졌다.